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따라

익산시(시장 정현울)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안)'안이 통과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 시는 지난해 부결사유였던 팔봉공원은 민자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미개발 주거지역은 고도제한을 해제해 공공 또는 민자 개발을 유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간접영향권내 300m 지역은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부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주민

민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등을 거쳐 재정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팔봉근린공원과 남측 미개발주거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개발계획 재수립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간접영향권을 고려한 시설배치 재검토 필요성 등을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정현울

익산시장은 "택지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절차가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며 "장기간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동부권 활성화를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익산=정현원 기자



익산시가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익산시, 도민체육대회 종합 2위 '쾌거'

익산시가 2019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익산시는 총 37개 종목 881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타 시군 선수들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를 펼쳤다. 특히 체조와 족구, 축구 종목은 대회 사상 최초로 우승하여 종합 2위 성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도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에서 상위 3위 이내 성적을 거둬 체육도시로서의 익산시의 자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익산시는 정현울 익산시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체육회 임원과 이 상춘 경재관광국장 등 시 체육진흥과 직원을 포함한 30여명의 격려단을 구성하여 대회 둘째 날 축구, 육상, 궁도, 게이트볼 등 10

여개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익산시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번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전액이 삭감되는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성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회에 출전하는 종목별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속에 시 체육진흥과와 체육회 파견 직원 및 1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도민체육대회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 주야로 노력하였다. 정현울 익산시체육회장은 "2년 만에 열린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익산시 선수단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진 체육도시로서의 익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도록 도민체육대회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익산시 선수단과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정현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부처별 국가예산 확보를 앞두고 연일 국회나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9일 강 시장은 국토교통부 김 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만나 군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완 이행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거듭 검토를 호소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 등 농림 분야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도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13일에는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해 문화재청 박한규 문화재보존 지정된 선유도 망주봉 일원 명승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배지철 지역 기업정책관과 면담을 통해 자동차 부품 기업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인중)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거듭 당부했다. 이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구암동 현대APT 주변 침수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해위험지구 선정 시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산복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등 생활하수분야 신규사업 6건이 부처 예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했다.

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 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은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안이 막바지 확정 단계에 들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부처 예산안 편성은 국비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시 현안 사업이 부

특히 논란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협상 제안에서는 기존 관행처럼 수행되었던 청소구역에서 벗어나 청소차 GPS 장치 설치·운영,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수거노선의 최적화, 미수거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등 다양한 청소행정 서비스 질도 향상시켰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샤워실 확충,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해외연수 등)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발판 및 영상정보 장치 설치, 배기관 방향 전환 등을 통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현원 기자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화장실 냉난방기 시범 추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공원 내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공원 내 10개소 화장실 중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및 물빛광장 화장실 3개소에 냉난방기를 시범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관광지내 폭염과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 일원에 인공안개를 분사하는 콜링포그장치 설치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향관산 관광진흥과장은 "은파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업체 선정 마무리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의 평가를 마치고 협상적격업체를 모두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최종 마무리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20점)), 가격평가(20점)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와 정량평가, 가격평가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유)합동산업,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눔,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유)제이산업,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가로청소(유)금강공사가 선정됐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익산시의 현황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이번 대행용역(총 사업비 283억7,500만원)을 기존 수의 계약방식을 벗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2년 동안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특히 기존 장기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논란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협상 제안에서는 기존 관행처럼 수행되었던 청소구역에서 벗어나 청소차 GPS 장치 설치·운영,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수거노선의 최적화, 미수거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등 다양한 청소행정 서비스 질도 향상시켰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샤워실 확충,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해외연수 등)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발판 및 영상정보 장치 설치, 배기관 방향 전환 등을 통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현원 기자

익산시, 전국장애학생체전 선수단 환영식

익산시(시장 정현울)가 13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도내 선수단을

제외한 16개 시·도 선수와 임원단의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물단을 포함해 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은 흥이 넘치는 품물공연과 열렬

한 환호성으로 선수단을 맞이해 선수들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14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서 16개 종목이 개최된다. /익산=정현원 기자

평생교육도시 군산, 미래설계 교육과정 개강

평생교육도시 군산시가 운영하는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을 위한 인생 2막 미래설계 교육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관심을 뜨겁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개인 생활과 성향에 따른 여가설계 ▲은퇴전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생활법률 ▲맞

춤형 대인관계 소통 전략 등 꼭 필요한 강의로 알차게 구성됐다. 실생활 법률에 이인철 변호사, 국내 최고의 생애설계 전문가인 문권식 인디언살림 대표, 최정상의 전문가인 김동영 (썬미래에셋 은퇴설계 이사 등) 강사진으로 구성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체육도시 브랜드 강화 추진 지시

정현울 익산시장이 1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도민체육회를 통해 익산시의 체육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체전을 계기로 익산시가 체육 도시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육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강화를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직원들이 그 간 열심히

뛰어 준 덕분에 난관에 부딪혔던 주민숙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이제 택지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절차가 끝난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익산=정현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